

풍경



✓ 전주  
성문 안 풍경

글쓴이  
김규남 김병용 김화성  
김회경 도환정 박진희  
백가흠 이경진

사진  
김경기 장근범

그림  
박성필 이주리

번역  
김경석

기획  
마당

디자인  
김정현

펴낸 곳  
사회적기업 마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14

발행  
2015년 12월

ISBN 978-89-969899-2-9 (13980)

이 책은 저작권자의 보호를 받는 출판물이므로 저자와 출판사 허락 없이 내용이나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사용  
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완판본 서체를 활용해 개발한 전주서체 완판본 마당체를 사용했습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전주를 추억하다

## 전주, 전주 사람들

- 012 왕의 얼굴  
전주사람들의 얼굴  
김화성
- 040 당신과 함께 큰길은 골목길이 된다  
오래된 도시 전주를 걷는 법  
김병용
- 056 헤어지고 잊었을 때 떠오르는  
도시는 누구도 떠나보낸 적이 없다  
백가흠



전주를 마주하다

## 전주, 전주 이야기

- 078 경원동, 다가동, 중앙동 이야기  
수천 번의 약속, 우리는 거리에서 만났다  
김회경
- 112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우리들의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서  
도희정
- 144 고사동 영화의 거리  
도시와 함께 흐르는 영화의 어제와 오늘  
박진희
- 174 완산동과 서학동  
골목에서 골목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 동네  
이경진



전주를 소리내다

## 전주, 전주의 말

- 206 전주의 말  
기린토월, '포료옴한' 저 달빛  
김규남

시골과 도시, 부모의 현재와 자녀의 미래, 부모의 기대와 경제적 현실이 절충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결절점을 이룬 곳이 전주 외곽 간이정류장 주변이었던 것.

### 사고사시(四固四市), 전주는 성이었고 거대한 시장이었다

13개 시군의 애정과 보호 속에 성장한 도시가 바로 이곳, 전주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 시골뜨기들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전주의 주요 시장이 모두 시 외곽 지점에 있다는 사실!

전주에는 남부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북부시장(금암시장)이 모두 간이정류장과 가까운 근처에 있었다. 아니, 이런 시장 주변에 간이정류장이 설치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이걸 시골과 정반대였다. 시골에서는 장터가 마을 외곽에 있는 법이 없었다. 정중앙은 아니어도 그 마을 사람이나 옆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좋고, 먹고 놀기 좋은 중심에 장터가 서게 마련인데, 전주는 왜 시장이 이렇게 모두 바깥쪽에 있는 것인지 의아한 일이었다.(중앙시장은 1948년에야 생겼다고 들었다.)

이런 의문은 첫 번째 봄소풍을 통해 해소되었다. 소풍 장소가 바로 남고사와 남고산성이었다. 남고산 정상에서 허물어지긴 했지만 산등을 타고 길게 이어진 석축 산성을 보게 되었고,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동고사라는 절과 남고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전주에는 사고사(四固寺)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전주의 동서남북에는 천 년 전부터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그리고 진북사(북고사)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 풍수지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나이였지만, 네 개의 대문, 네 개의 절, 네 개의 시장이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전주는 오래 된 성곽도시였다!

네 개의 시장은 바로 그 성문 밖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 김제, 임실은 물론 멀리 순창, 남원, 부안, 고창, 군산, 익산, 무



